

직장인 ‘영끌’에 평균 빚 4862만원…코로나 피해업종 연체율 ↑

■ 통계청, 2020년말 기준 임금근로자 부채 규모 조사

1인당 평균 대출 10.3% 증가…1년새 454만원 늘어
 대출액 40대 높지만 증가율은 20대 29.4%로 월등
 저금리에 자산시장 호황…고소득 근로자 대출액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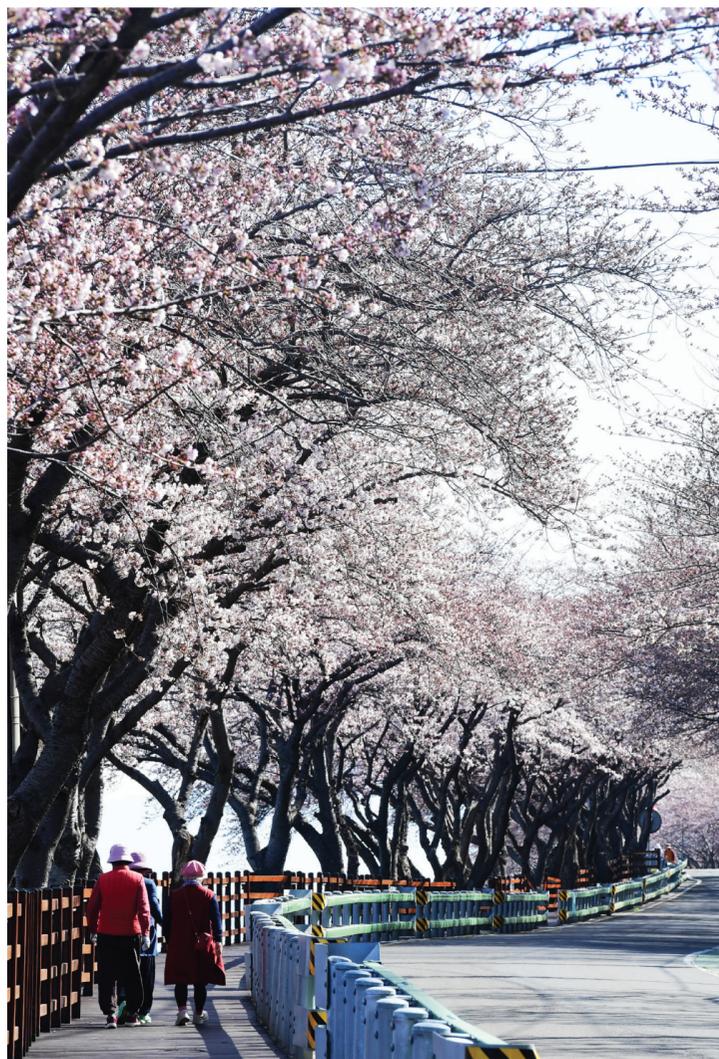
코로나19 충격이 강타한 2020년 말 기준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지난 몇년 간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이른바 직장인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 추세가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 정보통신 등 고소득 업종의 대출액이 컸지만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업종은 대출 규모는 작아도 높은 대출 증가율과 연체율을 보여 부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 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862만원으로 전년(4408)보다 10.3%(454만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

을 임금근로자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12월 기준 2017년 3974만원, 2018년 4175만원, 2019년 4408만원으로 5%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0년 두 자릿수 증가율로 급증했다. 대출유형별로는 은행이 전년보다 11.6%(330만원), 비은행은 8.0%(124만원) 증가했다. 신용대출(19.2%)이 가장 많이 늘었고, 보증자리론이나 전세대출 등 주택외담보대출(15.8%)도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주택담보대출(1.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인 중위대출은 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3%(631만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0.50%로 전년보다 0.1% 포인트(p) 소폭 낮아졌다.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평균 대출은 6026만

원으로 여성(3438만원)의 1.75배다. 1년 새 증가폭은 남성 10.0%(549만원), 여성 11.2%(347만원) 증가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남성 0.55%, 여성 0.40%로 각각 0.1%p, 0.09%p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대출액은 40대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로 보면 ‘2030세대’ 젊은 직장인이 높았다. 40대 근로자 평균 대출액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712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0대(6475만원), 50대(5810만원), 60대(3675만원) 순이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이 1466만원에 불과했지만 대출 증가율이 30%(29.4%)에 육박했다. 30대도 15.5%로 비교적 높았다. 29세 이하의 전년보다 주택의 담보대출(45.0%)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30-60대는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9세 이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에 따른 보증자리론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이나 자산 참여 확대로 신용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액을 보면 소득 5000만~7000만원 미만은 8845만원(10.4%), 7000만~1억원 미만 1억1882만원(9.7%), 1억원 이상 1억7131만원(9.1%)로 증가율과 대출액이 컸다. 3000만원 미만은 2386만원(6.8%), 3000

만~5000만원 미만 5063만원(6.3%)으로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대출 규모나 증가율이 낮았다. 반면, 연체율은 3000만원 미만(1.25%), 3000만~5000만원 미만(0.3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별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은 금융·보험업이 9541만원으로 가장 높고, 정보통신업이 70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은 189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대출 증가율이 21.5%로 가장 높았다. 연체율도 숙박·음식점업이 1.19%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박남진기자



꽃망울터뜨린 남해벚꽃.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왕지벚꽃길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방역 강화 필요성 떨어지” 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혀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지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시에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유류비 폭등 전남도,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긴급 예비비 84억원 편성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등 2만 9000여 어업인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4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유인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경유, 휘발유, 중유, 3종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4개월간 구입비용의 약 10%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어업인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선·양식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CHEON

Kore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